

국가별 동향



미국

“배달 상자에 닭날개 대신 돈다발이 들어있다면...”



マイク ベイガス(42)는 모처럼 쉬는 날 도미노 피자와 닭 날개를 주문했다가 닭 날개 상자 안에 현금 1천 289달러(약 150만 원)가 든 것을 발견했다. 닭 날개 상자 안에는 예금전표와 함께 666달러와 623달러가 고무줄에 묶인 채 담겨 있었다. 베이ガ스는 은행으로 가야 할 닭 날개 상자가 피자 배달 운전자의 착오로 자신의 집으로 온 것을 깨달았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 피자 배달 운전자로부터 ‘혹시 돈이 담긴 상자를 보지 못했느냐’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 그는 잠시 고민하면서 상황 설명과 함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보기로 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가져라”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상반된 응답이 반반이었다. “그 상자, 정말 맛있게 보인다”는 댓글도 있었고, “666달러는 불길한 숫자다. 당장 돌려줘라”는

주문 배달된 닭 날개 상자 안에 닭 날개 대신 현금다발 두 다발이 들어 있다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바텐더

경고성 댓글도 있었다. 베이ガ스는 지역 언론과의 통화에서 “딸이 자동차를 사는데 보태자는 꼬드김에 잠깐 번민하기도 했지만, 돈을 잃고 근심에 빠져 있을 피자 배달 운전자를 생각했다”고 돈을 돌려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피자 배달 운전자가 투잡(Two-job)을 뛰며 사는 자신의 처지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했다. 베이ガ스는 돈을 돌려준 날 오후 늦게 피자 가게 주인으로부터 “1년간 공짜로 피자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피자 배달 운전자도 해고되지 않았다는 언급도 잊지 않았다. [연합뉴스]

난데없이 나타난 닭 한 마리, 4시간 도로 정체 소동

닭 때문에 아침 출근길이 약 4시간 동안이나 정체가 빚어지는 소동이 일어났다. CBS 뉴스 등 미국 매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오클랜드 한 도로를 점령한 닭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벽 5시 50분쯤 닭은 처음 포착됐다. 이 닭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차량의 흐름을 방해했다. 닭은 잽싸게 돌아다니다가도 차 앞에 멈춰서서 길을 막기도 했다. 경찰이 출동해 닭을 잡으려 했지만 생각보다 빠른 스피드의 닭을 잡기란 어려웠다. 경찰은 결국 약 4시간 만에 닭을 붙잡았고 오전 10시 10분쯤 상황이 종료됐다. 닭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경찰에 붙잡힌 닭은 동물 보호소로 옮겨졌다. [위키톤리]



호 주

삶은 계란 날계란으로 만드는 기계 발명한 호주의 과학자, '패러디 노벨상' 수상



삶은 계란을 날계란으로 만드는 기계를 발명한 호주의 한 과학자가 노벨상을 패러디한 이그노벨상을 받았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남부 애들레이드에 소재한 플린더스 대학 콜린 라스턴 화학과 교수는 단백질 분자를 펴주는 '와류 유체장치'를 개발했다. 이 장치는 회전을 통해 접혀 있는 계란 흰자의 단백질을 펴서 원래 상태로 만들어 준다. 라스턴 교수가 삶은 계란 흰자를 장치에 넣은 뒤 다시 꺼내자 액체상태로 변했다. 이 장치는 화학요법 약물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명품이 될 것이라고 평을 얻었다. 라스턴 교수는 "이그 상을 받게 돼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다"며 "계란을 삶기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 자체 보다는 과학 원리를 설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발명이) 세계 제약 산업에 연간 1,600억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에너지 및 식품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며 "와류 유체장치의 가치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다"고 부연했다. '패러디 노벨상'이라고도 불리우는 이그노벨상은 매년 기발하면서도 재미있는 연구성과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발행하는 유머과학잡지인 '기발한 연구 연감(Annals of Improbable Research)'이 과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만든 상이다. 매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기 직전인 9월 2~3주 목요일에 하버드대 샌더스 극장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이 수상작 심사 및 시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덴마크

육계 수송 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덴마크 과학자들과 민간 기업은 육계를 도계장으로 수송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서로 힘을 모아 연구키로 했다. 이는 동물 복지, 환경, 식품 품질에 대해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날씨에 따라 도계품질이 달라지는 점을 오르후스대학 교 연구팀이 새로운 개념의 닭 생리 현상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닭의 운송 중 환기상태에 따라 닭은 더욱 편안한 심리를 얻어 부가가치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 할 전망이다. [thepoultrysite]



인도네시아

2020년까지 양계산업 매년 5% 성장 예상

인도네시아 식품 및 농업연구기관의 Pawan Kumar 이사는 2020년까지 자국의 양계산업은 매년 꾸준히 5%의 성장세를 보일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24세 이하의 젊은 층 인구가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산층 증가와 도시화로 양계산물을 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이유로 봤다. [asian-agribiz] 양계